| 사유의 숲을 거닐며 |

木蓮, 나무서 피어난 고결한 연꽃



송마나
작가



그림 · 강병호

꽃이 피었다. 나무에 연꽃이 피었다. 오므렸던 목련 꽃잎이 벌어질 때 봄은 만개한다. 하늘을 향하여 꽃을 피우는 목련은 매화와 벚꽃으로부터 봄이 태어난다는 이야기에 마음을 흔들리지 않는다. 그의 심연에는 한파를 견디며 피어나는 매화의 고결함과 경쾌하게 군무(群舞)를 추는 벚꽃의 화려함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봄에 피어나는 꽃들 중에서 목련만큼 자의식이 강한 꽃이 어디 있으랴.

나는 어디 있는가? 목련 꽃봉오리 속에 있다. 나는 목련이 꽃봉오리를 터뜨릴 때 세상에 태어난다. 꽃잎을 열고 봄빛 속으로 나아간다. 봄빛도 무거운 겨울을 밀어내고 빛나고 있다. 봄빛이 찬란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리라. 생명은 모두 죽음과 같은 겨울을 통과하고 태어난다. 부드러운 봄빛 속에서 목련 꽃 향기가 은은하다.

모든 꽃들은 태양을 따라 남쪽을 바라보고 꽃을 피우지만 목련은 태양마저 빛을 잃은 북쪽을 향하여 꽃을 피운다. 일본 총독부를 거부하여 북향집을 지은 만해(萬海) 스님의 심우장(尋牛莊)을 떠올린다. 봄에 피는 꽃들 중에서 목련만큼 자존감이 깊은 꽃이 어디 있으랴.

목련꽃이 피었다. 등불을 켜듯 목련꽃이 피었다. 겨울 내내 토요일마다 도심에서는 언 손을 호호 불며 봄이 오기를 갈망하며 촛불을 밝혔다. 거리를 가득 메운 수많은 촛불들이 등불처럼 빛났다. 등불은 목련이 어두운 겨울을 뚫고 나오도록 길을 비추었다. 이윽고 봄바람에 목련꽃이 피었다. 그 바람은 얼어붙은 대지를 녹이는 훈풍(薰風)이며 내일을 향한 희망의 신풍(新風)이었다.

우리는 어디 있는가? 어두침침한 동굴 속에 있다. 동굴은 실존이 밖으로 나아가는 원심력을 제어하고 구심력으로 족쇄를 채운다. 누구나 동굴 벽에 비추는 그림자를 실체로 여긴다.

우리는 봄날의 부풀은 대지에서 삶의 교향악을 아름답고 자유롭게 연주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지휘봉을 잡은 손은 오케스트라를 바르게 지휘하지 않는다. 목련이 나목(裸木)에서 꽃을 피우듯, 지휘자는 연꽃의 마음으로 교향곡을 정교하게 작곡하고 지휘해야 한다.

우리는 오선지 위의 길고 짧은 음표들이다. 음표들은 악보 안에 갇혀 있다. 음표의 본질은 소리이거늘. 소리는 음표의 울림이며 숨결이다. 봄노래를 부르고 싶다. 우리는 목련꽃 그늘 아래서 베르테르의 편지를 읽고 싶다.

잎을 피우기도 전에 꽃을 피우는 목련처럼, 봄빛을 그리워하며 겨울밤에 불빛을 밝힌다. 어두운 동굴 속에서는 출구를 찾아야 밖으로 나갈 수 있다. 동굴의 내벽은 인간 마음의 안쪽을 닮았다.

인간에게 낡은 동굴을 허물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침묵이다. 침묵은 말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창조 이전부터 영속하는 본유(本有)의 불성(佛性)이다. 침묵 속에 봄의 씨앗을 뿌려 키워나가면 꽃은 피어날 것이다. 모진 추위에도 몸을 굽히지 않는 올곧은 마음과 믿음으로써 인고를 견디며 침묵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는다. "오, 내 사랑 목련화야" 노래 소리가 들려온다.

목련잎 벌어질 때 봄은 만개
그 심연엔 고결 · 화려함 담겨
이만큼 자존감 깊은 꽃 있나

수많은 촛불, 등불처럼 빛났다
어두운 겨울 지나 봄바람 불고
이윽고 목련은 꽃을 피워냈다

목련 개화, 탄생 모습과 흡사해
자신 몸 · 영혼 모두 바치는 헌신

묘문(妙門)이 열리고 있다. "그대 내 사랑 목련화야" 노래 소리가 크게 들려온다. 문지방을 넘어선 느낌이다. 현기증으로 비틀거린다. 봄빛이 눈부시다. 슬픔과 분노, 회한과 고독, 암울했던 혼란의 시대가 허물처럼 떨어져 나간다. 신생(新生)이다.

목련이 꽃봉오리를 터뜨릴 때마다 새로운 우주가 태어난다. 우윳빛을 머금은 하얀 꽃잎이 아름답다. 흰색은 시작 이전의 무(無)의 색이다. 무의 색은 죽은 것이 아닌 가능성으로 가득 찬 침묵의 색이다. 흰색은 깨끗한 순결과 충만한 기쁨으로 넘친다. 연꽃의 무염시태(無染始胎)이다.

우뚝 서 있는 목련에게는 근접할 수 없는 고고함이 느껴진다. 목련은 연꽃이 피어나는 여름까지 기다릴 수 없어 답답한 겨울을 뚫고 스프링(Spring, 봄)처럼 솟아올랐다. 연꽃은 여여한 마음으로 따뜻한 물 위에서 꽃을 피우지만 성급한 목련은 봄날에 불꽃처럼 일어서야 했다. 연꽃이 수평적인 물의 꽃이라면 목련은 수직적인 불의 꽃이다. 연꽃은 만물의 더러움을 물로써 정화하지만 목련은 불로써 소각한다. 만물의 온갖 죄악 속에서도 물들지 않는 청정무구(淸淨無垢)한 꽃, 이래서 부처님은 연화대(蓮花臺) 위에 앉아계시나 보다.

나목(裸木)이 터진 자리마다 목련꽃이 피어난다. 아무 기척도 없는 텅 빈 벌판에 벌거벗고 서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다. 겨울바람이 얼마나 혹독하게 몰아쳤으면 몸뚱이만 앙상하게 드러내고 있을까. 그래도 드러눕지 않고 비상하는 수직 축을 따라 꼿꼿하게 서 있는 기개. 이것은 아픔과 외로움을 삼키며 내일로 솟아오르려는 존재의 근원적인 모성일까.

어머니가 새 생명을 몸속에서 키워 세상으로 내보내는 것은 자신의 몸과 영혼을 송두리째 바치는 헌신이다. 이때 어머니와 새 생명의 본질은 다르지 않다. 연꽃도 화과동시(花果同時)로 꽃과 열매를 분별하지 않고 함께 자란다. 맨몸을 찢고 터뜨려서 꽃을 피우는 목련을 차마 바라볼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이 만유(萬有)의 순리인 것을. 목련꽃이 피어나는 모습은 어머니의 자궁에서 생명이 태어나는 모습과 흡사하다. 목련이 꽃을 피우는 것은 우주의 도태(道胎), 즉 법신(法身)이 열리는 것이다.

불법(佛法)의 세계는 촛불도 태극기도 하나이다. 우리 서로 손을 잡고 목련꽃 향기 그윽한 저 봄빛 속으로 나아가자.

社 說

스님 '건강검진' 복지 환영한다

조계종과 동국대 의료원이 스님들의 건강 복지를 위해 검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소식이다.

조계종 승려복지회와 전국비구니회 · 동국대 의료원은 3월 14일 업무협약을 맺고 스님들의 안정적 수행 생활을 위한 건강검진 서비스를 시행키로 했다. 협약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특별한 통보가 없을 시 자동적으로 2년씩 연장된다.

이들 기관들은 협력업무 추진을 위해 실무위원회를 운영하는 한편, 소요되는 비용은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 · 분담한다.

협약이 갖는 가장 큰 의의는 대상 범위를 조계종 소속 모든 출가수행자로 포괄 · 적용한 점이다. 그간 승려복지회의 치료비 지원 사업은 발병 이후 돕는 사후적 정책이었다면 이번 협약은 미리 질환을 방지하는 예방적 차원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스님들의 원활한 건강검진을 돕기 위해 동국대 일산병원이 현재의 일반인 대기실과 병실에 일정 정도 구분을 둘 예정이다.

조계종과 전국비구니회, 의료원은 출장 검진도 계획하고 있다. 의료기관이 부족하거나 비용이 없어 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스님들을 위해 강원 등 인원 규모가 큰 곳을 방문해 검진을 돕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 1월 발간한 〈성직자 노후보장 실태와 국민연금 가입 제고 방안〉에 따르면 종교인들은 '의료'에 대한 노후 복지 욕구가 3.52점(5점 척도)으로 가장 컸다. 그런 의미에서 조계종과 전국비구니회, 동국대 의료원의 이번 협약은 스님들의 노후 복지 욕구에 부합하는 정책이다.

이번 검진서비스로 스님들이 검진 시기를 놓쳐 병을 키우는 일이 없도록 잘 시행될 수 있길 기대한다.

미래세대 포교, 태아 때부터 시작을

아이를 가진 임산부가 주로 듣는 태교음악을 떠올려 보자. 브람스의 자장가, 모차르트의 교향곡 25번 등 클래식 곡이 생각날 것이다. 찬불가를 태교음악으로 듣는 임산부를 본적이 있는가?

최근 조계종이 태교와 영유아 포교를 위해 태교음악을 비롯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그동안 성인문화포교 수단이었던 찬불가를 임산부가 듣기 좋은 음악으로 개발했다. 이 뿐만 아니다. 임산부 자애명상, 출산 후 부모은중경 사경 등 다양한 태교 · 조리법을 내놨다. 여기에 영유아기 아이와 부모가 함께 하는 마음챙김법도 개발해 보급을 시작했다.

일선 사찰도 종단의 이런 움직임에 맞춰 영유아 포교를 위한 수유실을 만들고 마정수기 법회를 매달 여는 등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한다. 서울 강남 봉은사의 경우 영유아수계법회를 매월 진행으로 변경하고 아기인등을 무료로 실시해 20명 넘는 유아들이 수계를 받았다.

그동안 불교는 알게 모르게 미래세대에 대한 포교를 놓쳐왔다. 어린이 법회가 날로 줄고, 어린이집, 유치원 등 아동교육시설도 기독교계에 비해 열세였다. 그 이면에는 태아 때부터 1살 때까지인 태아 · 영유아기 포교가 사실상 방치였다는 점이 작용했다. 성경 태교동화 등을 2000년대 초반 개발해 보급한 기독교계는 아동교육까지 자연스럽게 선교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불교계는 산모 명상과 요가, 영유아와 부모의 불교식 애착형성 프로그램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이들이 사찰로 오고, 불교를 접하게 해야 한다. 불교의 미래에 적신호가 켜진 지금, 미래세대를 위한 포교를 그 어느 때보다 적극 펼쳐야 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 ·세계화
발행인 : 혜원 편집인 : 혜도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연등시공전문기업 대광불교
연등자동승강장치 최초개발시공업체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화등
공단등
만월등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 시공
자동승강장치 특허
자동승강장치 특허
절첩식 연등 특허
LED 전구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e-mail : hskhsg@naver.com | 010-9446-1862 |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